

앤토니 리스터 개인전 'Welcome to Lister's World' 6월 17일 개막

A 최진원 기자 | © 승인 2021.06.03 21:14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 8월 29일까지
호주 스트리트 아트 선구자, 국내 첫 전시
자유롭고 역동적 혼합매체 사용 돋보여



Let The Rain In, 캔버스에 아크릴, 혼합매체, 51x40.5cm, 2021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이 6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앤토니 리스터(Anthony Lister)의 개인전인 'welcome to Lister's World'를 개최한다.

작가는 많은 창작물에 등장하는 악당으로부터 사회를 구하는 히어로의 일반적인 규율에 벗어나 마음에 내재한 선과 악의 개념 사이의 모호성에 의문을 던진다. 사회 속에서 정의라는 미명 아래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향해 질문한다.



Body Turns, 캔버스에 아크릴, 혼합매체, 51x40.5cm, 2021

전시실에 일렬로 늘어선 가면을 쓴 슈퍼히어로는 히어로와 악당 그리고 선과 악이란 양가성의 시각적 혼종물이다.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블랙 등 만화책에서 볼 법한 색상 범위를 사용해 그려진 각각의 캐릭터는 그와 대비되는 여백의 공간을 부유한다. 디자인 용어로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도 불리는 이 공간은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점이나 행위에 의해 지각되는 상대적이고도 미결정적 공간이다. 그곳은 관찰자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볼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며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품는다.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튀긴 표면의 흔적은 여전히 젖어 있는 듯한 효과를 내며 리스터의 붓질과 만나 거리와 스튜디오로부터 뻗어 나온 힘과 생기를 보여준다.

앤토니 리스터 (Anthony Lister)



1979년생으로 호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트리트 아티스트다. 도발적인 주제를 통해 현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술의 단단한 권위를 느슨하게 만드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목탄, 아크릴, 스프레이, 유채 등 여러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작업은 일정한 주제로 제한되지 않는 대담함을 보여준다. 10대부터 그래피티 작업을 시작해 그래피티에 뿌리를 둔 자신만의 시각적 언어를 형성하며, 호주 스트리트 아트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다.

퀸즐랜드 예술대학을 졸업해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일본 등지에서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시드니에서 활동 중이다. 호주 내셔널 갤러리, 베를린 어반 네이션 등의 예술기관 뿐 아니라 데이비드 로버츠, 휴 잭맨, 핑크, 퍼렐 윌리엄스 등의 유명인들도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최진원 기자 dotmusic@leaders.kr